

# 이영애, 4년 만에 컴백 “이런 탐정은 처음이야”



JTBC 새 주말드라마 '구경이'가 베일을 벗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 JTBC 새 주말드라마 '구경이'가 첫 방송됐다. 추리 촉을 깨우는 방구석 의심러 '구경이' 역을 맡은 이영애는 연기 변신과 활약을 예고하며 기대를 더했다. 제작진은 하드보일드 코믹추리극을 내세운 '구경이'의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 ‘의심하는 자’ 구경이와 ‘연쇄 살인마’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전직 경찰이지만 현재는 게임과 술에 빠져 사는 은둔형 외톨이 '구경이'는 보험 사기 의심 사건을 의뢰받고 조사를 위해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다. 이 사건과 엮이며 구경이의 잠들었던 의심의 촉은 살아나

## JTBC 새 주말드라마 '구경이' 관전 포인트 공개

김혜준·김해숙·곽선영·이홍내 등 탄탄한 출연진

고, 구경이는 이 사건이 사고로 위장된 살인임을 직감한다. 살인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구경이의 추리가 풀가동된다.

## 이영애, 세상에 없던 탐정 캐릭터로 변신

'사임당 빛의 일기' 이후 4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배우 이영애를 향한 기대도 크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는 멜로로,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요리로, 또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화려한 복수로 센세이션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번 작품을 통해 이

영애는 세상에 없던 탐정 '구경이' 표 추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

## 어디로 튀지 모르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 열전

'구경이'에는 극을 더 풍성하게 채울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으로 이름을 알린 김혜준은 해맑은 미소를 지닌 미스터리한 학생 '케이'로 존재감을 발산한다. 김해숙은 자애롭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두 얼굴의 '용국장'을 강렬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곽

선영은 과파하고 의심 많은 구경이를 컨트롤하는 '나제희' 보험조사 탐정, 조현철은 센스 넘치는 조사관 '오경수' 역을 맡는다. 구경이의 오른팔 게임 파티원 '산타' 역의 백성철과 '케이'의 조력자로 합류하는 이홍내도 있다.

## 독특하고 신선한 극본과 몰입도 더할 연출

드라마 '조작' '아무도 모른다'를 통해 섬세하고도 몰입감 있는 연출을 펼친 이정흠 감독과 한예종 출신 루키형 성초이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예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연발하는 캐릭터, 각종 장르를 넘나드는 극 전개가 시청자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스카이데일리/뉴스



## 태권도 위상 불공정 관행 개선이 먼저

## ‘협회 미가입 도장’ 다녀도 승품·단 심사 가능해져

대한태권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에 다니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내년부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에 다니는 수련생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심사는 협회 가입 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와 미가입 도장을 위한 '비정규 심사'로 나누는데 이 비정규 심사는 지난 5년 동안 단 1회(2016년 12월3일)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태권도장 신고 사업장 1만298곳 중 대한

태권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은 408곳(4%)에 불과하다. 수련생의 승품·단 심사 기회를 확보하려면 가입비 300만원(시도별 평균 금액)을 내고 꼭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대한태권도협회는 회원이 아닌 미가입 도장을 위해 별도로 심사를 개최할 유인이 없다”면서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을 사실상 의무화해 불공정 행위가 생겨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합의해 정규·비정규 심사를 정례화하고 비정규 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모든 심사 일정은 사전에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회원 등록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밝혀낸 불공정 관행을 고쳤다”면서 “협회 가입 자율성이 증진돼 가입·미가입 도장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

## ‘스우파’ 리더 7인 ‘유 퀴즈...’ 출연

3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되는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스우파) 특집으로 꾸며진다.

7인의 리더들은 '스우파' 이후 첫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선택해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예고편에서 '스우파' 리더들이 출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호응이 이어졌으며, 이들을 맞이해 유재석이 '스우파' 스타일링을 한 채 리더들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리더 7인은 댄서로서의 삶을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었다는 후문이다. 유재석과 조세호를 들쭉이게 한 댄스 무대를 선보이는가 하면 진실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스카이데일리/뉴스

## 영화, 장벽없는 세상 이끈다

### 발달장애인 영화제 개최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0~11일 이틀간 18편 상영

발달장애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영화제가 광주에서 처음 열린다.

광주지역발달장애인지원회와 광산구지부는 11월10~11일 이틀 동안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2021 발달장애인 영화제'를 선보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막작은 10년간의 발달장애인 자전거순례 프로그램을 기록한 '두 바퀴로 시작한 10년의 도전'이 상영된다.

폐막작은 발달장애인광산지부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협력으로 제작된 영화 '보통의 청춘'이 선정됐다. 작품은 발달장애인들이 출연제작했다.

또 장애인영화제 수상작과 지역의 발달장애인단체들에서 만든 영화들도 관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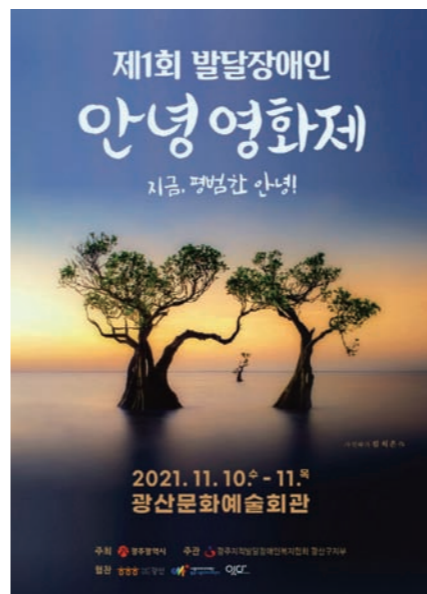
만난다. 초청작으로 프리마켓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일상을 보여주는 신작 '니얼굴'이 상영되고 작품을 제작한 서동일 감독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지난 2017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 꿇은 부모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학교가는 길'도 상영된다.

광주지역에서 있었던 장애인들의 우정을 다룬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도 선보인다. 작품은 비장애인 두뇌를 가졌지만 동생 '동구'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형 '세하'와 뛰어난 수영실력을 갖췄지만 형이 없으면 못하는 동생의 우정을 그리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극장을 찾지 못한 관객을 위해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상영된다.

백순영 광산지부장은 “영화제 주제는 발달장애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의 안



11월10~11일 이틀 동안 제1회 2021 발달장애인 영화제를 선보인다.

부를 묻고 별 탈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발달장애인 영화제는 장애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영화제를 통해 장벽없는 세상을 이끄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

## SSG 장수 외국인 타자 로맥, 현역 은퇴

SSG 랜더스 최장수 외국인 선수 제이 미 로맥(36사진)이 은퇴한다.

SSG는 지난달 31일 “로맥이 올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고 알렸다.

로맥은 전날(30일) 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클럽하우스에서 전체 선수단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구단은 기념앨범과 기념패, 꽃다발을 전달했다. 선수단 기념사진 촬영으로 선수로서의 마지막 시즌에 마침표를 찍었다.

로맥은 지난 2017년 SSG(당시 SK)와 처음 인연을 맺은 뒤 5시즌 동안 장타력과 수비실력을 겸비한 중심타자로 활약했다. KBO리그에서 통산 62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73, 610안타, 155홈런, 409타점의 성적을 남겼다. 특히 2018년에는 홈런 43개, 107타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네 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로맥이 때려낸 155홈런은 SSG 역대 외국인 선수 최다 기록이다. 역대 KBO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타이론 루즈(174개), 제이 데이비스(167개)에 이은 3위다.

스카이데일리/뉴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